

8. 수술시 세침흡인 검사의 유용성

- 췌장 두부 종괴에 대하여 -

Usefulness of Intraoperative Fine Needle Aspiration

- Mass in Pancreatic Head -

박영년, 이광길, 김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및 외과학 교실*

췌장 두부의 종괴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위한 세침 흡인 검사법은 생검에 의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 손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진단율도 높아 근래에 선호되는 검사방법이다.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수술시 병변 부위를 절개 생검하여 동결 절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병증의 병발이 높고 정확히 병변 부위의 조직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세침흡인 검사는 좀더 정확하게 병변부위에서 충분한 양의 세포들을 흡인 할수 있으며, 합병증의 병발이 적고, 숙련된 병리의사가 검색할 경우 동결절편보다 빠른 시간내에 동결 절편 검사와 같은 정도의 정확한 진단결과를 보고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췌장 두부 자체의 종괴 혹은 그 주위에 발생한 종괴로서 수술전 진단이 없었던 예들을 대상으로 수술시 세침흡인을 시행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후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관찰하였으며, 약 2년간 31 예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성 질환으로는 췌장암종 15 예, 말단부담도암 5 예, 십이지장 유두부주위암 1 예였으며, 양성 질환으로는 만성췌장염 8 예, 결핵 2 예였다. 진단결과의 확인은 수술하여 절제된 조직의 병리소견이나 세침흡인하여 얻은 세포의 세포군집절편을 이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의양성인 예는 없었으며, 의음성이 1 예 (3.2%)였다. 의음성이었던 1 예는 Papanicolaou염색을 시행하여 다시 살펴보았으나 분화가 좋아서 암종으로 확진하기 어려운 예였다. 진단이 유보되었던 3 예 (12.9%)는 모두 최종 진단결과 만성 췌장염이었다. Toluidine blue 염색은 1 단계의 조작으로 가능하여 간편하고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 만성 췌장염에서는 괴사물질로 인해 도말배경이 매우 지저분하게 염색되어 상피세포의 비정형이 관찰되는 경우 분화가 좋은 암종과의 감별이 어려웠는데, 만성 췌장염에서는 상피세포에서 어느 정도의 비정형이 관찰될지라도 세포들이 비교적 작고 균일한 모습을 보이며 3차원 구조의 큰 세포 군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감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침흡인 세포검사후 천자부위에서 간혹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쉽게 지혈되었으며, 다른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9. 췌장의 소도 세포 종양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Aspiration Cytology of Islet Cell Tumors of Pancreas

류근신, 이중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췌장의 종양은 통상 개복 수술에 의한 조직학적 검사로 진단되었다. 경복벽성 천자로 얻은 세포

학적 검사로 췌장의 종양이 확진됨으로서 결정적인 치료를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5년 간에 걸쳐 췌장의 소도세포종양으로 천자 세포학적으로 진단되고, 후속적으로 절제된 표본에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5예의 세포학적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말배경은 깨끗하고 괴사의 소견은 없었다. 간혹 천자 등에 의한 외상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종양 세포들은 풍부하게 도말되고, 독립된 개개 세포들과 함께 세 포군으로 나타났다. 세 포군을 이루는 종양 세포들은 견고한 판상, 유두상 및 선방상으로 배열하였다.
3.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호산성으로 붉게 염색되고, 중등도의 크기를 가지며, 세포의 변연부가 뚜렷하였다.
4. 종양 세포의 핵은 작고, 세포질의 중앙 또는 한쪽에 위치하고, 원형 또는 난원형이었다. 핵의 염색질은 섬세한 파립상이고, 핵소체가 잘 관찰되지 않고, 나타날 경우 작고 둥근 핵소체가 핵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5. 세포학적으로 감별을 필요로 하는 췌장의 종양으로서 선방 세포 암종(acinar cell carcinoma)와 고형성 유두상 상피성 종양(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plasia of pancreas)이었다.

10. 갑상선 질환의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세포병리학적 연구

A cytopathologic study on usefulnes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the evaluation of thyroid disease

박인애, 함익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갑상선이 증대되어 결절로 만져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양성 질환인지 악성 질환 인지를 감별하여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 원칙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주사검사나 초음파 검사가 이용되어져 왔으나, 최근 세침 흡인 세포검사가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시도되어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여,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타당성 있는 검사로 자리 잡혔으며, 특히 최근에는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나 초음파 검사 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경제적인 검사로 간주되어져 가고 있다. 이 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단의 정확도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고 하겠는데, 그 성직은 세침흡인 생검 시술자와 진단하는 세포 병리 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저자들의 갑상선 결절의 세침 흡인 세포 검사의 진단 성적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자들은 1990년 부터 1991년 까지 2년 동안 서울 대학교 병리 병리과에서 진단된 갑상선 세침흡인 세포검사 1594예의 진단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총 1594 예 중 410 예 (25.7%)에서는 진단 가능한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180 예 (11.3%)에서는 양성 질환, 758 예 (47.6%)는 갑상선 선종, 27 예 (1.7%)는 갑상선 여포 세포 증식이 있으므로